

## 예수님의 기적(6) : 나병환자를 고치신 기적(막1:40-45)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나병은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다. 한 번 걸리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고독하게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나병환자의 모습은 사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나병환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병환자처럼 겸손한 태도 예수님께만 나오면 된다는 것이다. 나병환자는 병을 낫게 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원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에게는 구원받을 자격도, 정결함도, 의로움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만은 자기 속에는 죄가 온 몸에 퍼져 썩어서 냄새나는데, 각가지 세상 것으로 치장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의인인양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나병환자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태도이기 때문이다.

### 1.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겸손히 당신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즉, 단장의 슬픔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셨다. 우리는 동정의 눈물을 흘려주고, 불쌍하다고 말해 줄 수는 있지만, 함께 아픔을 겪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몸소 겪으셨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 즉, 부부, 성도, 동료 관계 등을 푸는 열쇠다!

### 2. 손을 대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긍휼은 단지 관심으로 끝나지 않았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행동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이렇게 나병환자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부정하게 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불이익을 당하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해 나가셨다. “그에게 대시며”는 아픈 곳을 오래, 고루고루 쓰다듬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이렇게 어루만짐, 쓰다듬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신다. 세상에 나병환자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한 소외감, 고독한 마음, 쓰라린 마음, 버려진 이런 마음까지도 이렇게 만져 주심으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 3.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병환자에게 기적이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향하여 치유를 선포하셨다. 그 결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권세와 능력을 잘 보여준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신 말씀이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죽은 자들을 살리신 말씀이다. 바로 생명의 말씀,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났다. 다른 것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살릴 수 있다. 오늘날 미친 듯 돌아가는 세상을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에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 예수님의 기적(6) : 나병환자를 고치신 기적(막4:40-45)

1. 마음 열기 - 눈이 많이 내린 날의 추억을 얘기해 보세요.

2. 경배와 찬양 - 찬 254장(내 주의 보혈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줄을 잡으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로-다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본문과 말씀요약을 읽으세요.

(1) 성경본문과 주일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 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2) 나병환자처럼 예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있나요? “원하시면” 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입니까?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3) 나병환자에게 취했던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1) 불쌍히 여기는 모습, 2) 손을 대시는 모습, 3)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목장이 더 갖추어야 태도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4. 사역나누기

(1) "코로나19"가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 기도합니다.

(2) 함께 중보기도를 나누고, 특히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